

Robert Vannoy , 신명기, 9강

© 2011, Robert Vannoy 박사 , Perry Phillips 박사 및 Ted Hildebrandt

3번은 “역사적 프롤로그의 부재”였다. 4번은 “기본약관의 부재”였습니다. 히타이트 형식의 기본 규정은 충성의 기본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프롤로그 직후에 나옵니다. 왕은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너는 종주인 나를 섬기는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아시리아 조약에는 기본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것이 두 번째 구조적 차이입니다. 가신의 우두머리 파트너에 대한 충성 선언은 히타이트 조약의 역사적 서문을 밀접하게 따릅니다. 물론 아시리아 조약에는 역사적 서문이 없으므로 기본 조항도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아시리아 조약에는 충성 맹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이 전혀 다른 맥락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보세요. 저주가 이어지고, 또 저주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맹세는 신뢰와 충성심보다는 두려움의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히타이트 조약에는 역사적인 프롤로그가 있고 그 뒤에는 “나는 당신을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 한 일을 바탕으로 나를 섬기고 나에게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 번 두 당사자 간의 관계 질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네, 4번, “기본 조항의 부재”입니다.

다섯째는 ‘축복의 부재’입니다. 아시리아 조약의 가혹한 어조를 유지하는 데에는 또 다른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조약 규정을 준수한다고

해서 열거된 축복은 없습니다. 히타이트 조약에는 저주와 축복이 있습니다. 아시리아 조약에는 저주만 있을 뿐 축복은 없습니다. 축복은 히타이트 조약의 영구적인 조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두 그룹의 조약을 비교할 때 구조적 관점뿐만 아니라 확립되고 있는 관계의 관점에서도 그것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주와 축복에 대해 말하자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십계명인 십계명에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힌트만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서 축복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 그러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너는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 ” 그러나 축복과 저주의 요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계명에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십계명에는 저주와 축복의 요소가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신명기에서는 훨씬 더 명확합니다.

알겠습니다. 번호 '5' 였습니다. “6” 은 “앗시리아 조약의 조항은 일방적이다.” 입니다. 아시리아 조약의 규정은 오로지 작은 파트너, 즉 가신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즉, 소동반의 의무는 대왕에 대한 것이다. 가신을 부양하고 보호해야 하는 왕의 의무에 대한 상호 책임에 대한 힌트는 없습니다. 이는 히타이트 조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즉, 히타이트

조약에서 대왕은 “보라, 나는 이것, 이것, 이것을 하라” 고 말할 뿐만 아니라, 가신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도 스스로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리아 규정의 일방적인 성격에는 없는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7. “아시리아 조약은 엄밀히 말하면 계승 조약이다.” 아시리아 조약의 주제는 히타이트 조약의 주제와 상당히 다릅니다. 앗시리아 조약에서 모든 것은 특정 문제에 관한 것이며, 그것은 계승의 문제입니다. 즉, 에사르하돈 출신의 아슈르바니팔 왕의 계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타이트 조약과 비교해 보면, 히타이트 조약은 단지 파트너들 사이의 관계의 한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 양측 모두에서 중요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8”은 “결론”입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앗시리아와 에살하돈 조약과 히타이트 조약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리아 조약의 구조적 패턴은 다르며, 그것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은 다른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그 관계는 상호 지원의 관계가 아니라 가신에게 맡겨진 앗시리아 왕의 가혹한 요구와 위협의 관계입니다.

이제 그러한 종류의 고찰을 바탕으로 메레디스 클라인은 아시리아

조약이 이전의 히타이트 조약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해당 기간 동안 조약의 형태에는 진화 또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흥미롭게도 1954년에 조약과 규약 자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기사를 쓴 Mendenhall과 WF Albright 및 John Bright가 이에 대해 Kline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Mendenhall은 자신의 원본 기사 “율법과 언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언약 유형은 대제국의 몰락에도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통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원전 2000년 후반 제국, 특히 아시리아가 다시 일어섰을 때, 그들이 그들의 가신을 묶는 계약의 구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Mendenhall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는 원래의 히타이트 조약이 아시리아 조약에서 다음 천년까지 존속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다른 구조였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모든 자료에는 아시리아 조약에 관한 역사적 프롤로그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신들만이 증인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체 패턴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그 형태가 다른 곳에서도 살아남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작가는 이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광범위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예상해야 합니다.”

석기 시대 의 기독교에 대한 올브라이트(Albright)는 멘덴홀(Mendenhall)의 의견에 동의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원전 8세기 후반과 그 이후의 페니키아 조약에서 발견되는 여섯 개의 아시리아 조약의 구조는 상당히

다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History of Israel)* 에 나오는 존 브라이트(John Bright)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왜 DJ Wiseman과 McCarthy가 그 형태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조약을 발표한 Wiseman과 McCarthy는 그 형식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DJ Wiseman은 조약에 대한 논평을 출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조약의 형식은 이미 히타이트 제국 시대에 표준화되었으며 이 텍스트(Esarhad don의 가신 조약)는 기본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신 아시리아 시대를 통해.” 그는 표준화된 히타이트 형식을 사용하여 아시리아 시대에도 변함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McCarthy는 이를 선택하고 Wiseman을 지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천년의 아시리아 및 기타 조약은 두 번째 천년의 히타이트 형태와 구조가 비교적 다르다고 합니다. 방금 완료된 분석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Moshe Weinfield가 그의 저서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c School* (1972)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타이트 조약의 공식화를 독특하다고 간주할 만한 정당성은 없습니다. 또한 오직 히타이트 조약만이 성경 언약의 모델과 원형이 되었다는 멘덴홀의 가정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DJ Wiseman, McCarthy 및 Weinfield 는 기본적으로 아시리아 조약과 히타이트 조약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Kline, Albright, Bri

ght, Mendenhall 등은 히타이트 형식과 아시리아 형식 사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특정 요소가 있습니다 . 규정이 있고, 저주가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몇 가지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유사점 가운데 내 요점과 Mendenhall의 요점은 형태의 수정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중요한 몇 가지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조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리아의 군사 기술과 전략이 매우 폭력적이고 무자비하다고 알려진 것과 일치합니다. 그들은 공포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강요했고, 아시리아 조약 형식이 이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Weinfield 와 McCarthy를 포함한 몇몇 다른 사람들은 조약 계약이 있고 그 형식은 성경 자료에서 발견되지만 그것은 기원전 600년 또는 700년경에 아시리아인에게서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모자이크 기원의 역사적 의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앗수르로부터 조약 양식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히타이트 조약만큼 밀접하게 그 형태에 맞지 않습니다 . 이것이 바로 이 점이 Kline의 주장에 있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대해 다시 다루겠습니다.

계속해서 D로 가겠습니다. " 세피레 의 아람어 조약을 에사르하돈의 속국 조약 및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과 비교했습니다." 첫째, 몇 가지 소개 사항입니다. 세피레 조약이라고 불리는 아람어 조약이 있었습니다 . 그

연대는 기원전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시리아 조약보다 조금 더 이른 것입니다. 아시리아 조약은 기원전 672년에 체결되었습니다. 세파이레 조약은 8세기, 기원전 70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조약문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간단히 "세파이레 1", "2", "3"이라고 부릅니다. 세파이어 로마 숫자 I, II, III. 그리고 그것들은 약 60년 전 시리아라는 곳의 세피레(Sefire)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1958년이 되어서야 그 내용이 출판되고 연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 두 개는 시리아 다마스쿠스 박물관에 있고, 다른 한 개는 레바논

베루이트 박물관에 있다. 2. "양식에 대한 간략한 조사" - 여기에 양식의 개요를 넣었습니다. 여러 부분을 주목하세요: 제목; 증인이었던 신들; 저주와 그에 수반되는 권리; 조약의 신성한 성격; 규정; 미래를 위한 알림; 축복; 저주.

이제 그 형식은 완전한 텍스트인 첫 번째 Sefire 텍스트인 로마 숫자 I에서 가져왔습니다. 다른 것들은 상당히 단편적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를 소개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파르파드 왕 업터 소 마스 의 아들 마티엘 과 [특정 장소에서] 비르가야 의 조약 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조약의 두 파트너가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비르 가야 조약이다. 그 사람은 그에 대한 언급 외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다른 참고문헌은 없습니다. 그가 왕이던 땅도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신 마티엘은 아시리아의

또 다른 조약인 아시리아의 다섯 번째 통치자인 아세르-미라리(Asher-Mirrar i) 의 조약에서 확인됩니다 . 마티엘은 기원전 754년경 유프라테스와 지중해 사이의 북부 시리아의 통치자였습니다.

이 섹션을 모두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어떤 유형의 자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 수반되는 저주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밀랍이 불에 타는 것같이 아르밧과 그 딸 성읍들도 불사르리라.”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보여주기 위해 밀랍을 태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Sefire 텍스트는 매우 단편적입니다. 그것은 약 12개의 조각으로 발견되었으며, 조각들을 서로 맞춰보면 이 텍스트의 구조와 매우 유사해 보이는 설명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조약과 비교할 때 큰 가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문서도 역시 단편적이며 규정만 있습니다. 이는 세 번째 문서에 남아 있는 유일한 섹션입니다. 양식의 섹션 번호 6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텍스트 중 가장 광범위한 규정 모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음모자들의 행복, 도망자들의 행복, 통행의 자유, 국경 통과, 암살 시 취할 복수, 도망자들의 상호 귀환, 그와 관련된 다양한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규정은 보존되는 한 일방적입니다 . 그들은 가신의 행위를 규제합니다.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상호적인

성격을 띠지 않으며, 그것은 도망자의 귀환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방적입니다.

세 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리아 조약과 세 피레 조약의 유사점.” 구조를 살펴보면 역사적 프롤로그가 없더라도 둘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아시리아 조약에는 역사적 프롤로그가 없고, 세피레 조약에는 역사적 프롤로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피레 조약은 히타이트 조약보다는 아시리아 조약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프롤로그도 없고 어느 쪽에도 기본 규정이 없습니다.

Fitzmeyer 는 “특히 한 가지 요소, 즉 역사적 프롤로그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람어 조약에서 이 요소를 생략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 이 요소가 없다는 것은 아람어 조약과 히타이트 조약 사이의 주요 차이점을 구성합니다. 이 요소는 헛 족속의 언약 개념의 기본이다. 이는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의 법적 틀을 구성합니다. 히타이트 종주국은 가신의 봉사에 대한 의무를 확립하기 위해 자신의 가신과 전임자들에 대한 호의를 회상했습니다. 실제로, 아람어이든 아시리아어이든 기원전 1000년의 언약에는 없는 것이 바로 이 요소입니다.” 이 자격은 계약 형태가 신아시리아 시대에도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남아 있다는 Wiseman의 논평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논쟁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Fitzmeyer 는 Sefire 의 아람어 비문을 출판했습니다 . 그게 바로 이 책이에요. 우리는

본문과 그에 대한 그의 논평을 읽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역사적 프롤로그와 그 기본 조항이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조항도 일방적이다. 탈북자들의 귀환을 제외하고는 일방적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다시 히타이트 조약과 대조됩니다. 앞서 앗시리아 조약과 관련하여 언급한 바 있는데 역시 일방적입니다. 아시다시피, 히타이트 조약에는 대왕 이 봉신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는 “보호 조항”이 종종 있습니다. FC Fensham 은 “히타이트 조약에서 가장 인도적인 조항 중 하나는 적으로부터 가신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보호는 우두머리 파트너의 왕국을 보호하기 위해 약속되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가신에게는 가장 고무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두려워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조건 하에서 평화로운 공존의 시기에 작은 왕국은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조약이나 세피레 조약에는 보호 조항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증인 섹션의 배치입니다. 이러한 세피레 조약에서는 서문, 제목 또는 서문 바로 뒤에 신들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증인이 히타이트 조약의 어디에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이전이 아니라 규정 이후입니다. 따라서 이 세파이레에서는 히타이트어보다 앗시리아어 형식에 더 가깝습니다. 아시리아 형식에서는 서문이나 제목 바로 뒤에 증인으로 신들이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세피레 조약이 아시리아 조약보다 히타이트 조약에 더 가까운 어떤

것들이 있는데 , 우선 두 파트너의 신이 증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람어 조약에는 대왕과 봉신의 신들이 모두 인용되어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히타이트 조약에서는 두 파트너의 신, 즉 대왕의 신과 봉신의 신이 증인입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조약에는 아시리아의 신들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파트너의 신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피레 조약은 아시리아 조약보다는 히타이트 조약에 더 가깝습니다.

셋째, 규정의 주제는 아시리아 조약보다 넓습니다. 아시리아 조약은 계승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세 피레 조약은 범위가 훨씬 더 넓으며, 그런 의미에서 히타이트 조약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넷째, Fitzmeyer는 Sefire 조약 에 대한 논의에서 일부 규정의 공식화 스타일이 히타이트 조약 공식화의 규정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매우 긴밀한 대응 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5" "결론"이 나옵니다. 나는 세피레 조약이 이전의 히타이트 조약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보인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 프롤로그의 부재, 기본조항의 부재, 기본조항의 일방적 성격 등이 문제이다. 그래서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고전적인 히타이트 형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세피레(Sefire) 조약, 그리고 에사르하돈(Esarhaddon) 아시리아 조약을 얻습니다 . 세피레(Sefire)는 아시리아 양식보다 히타이트 양식과 더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세 파이어 조약은 구조와 내용 면에서 중간쯤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 조약과 일부 유사점이 있고, 일부는 히타이트 조약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조약 형식의 발전 과정에 대해 클라인이 말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 피레(Sefire)와 아시리아 조약은 두려움에 더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히타이트 조약은 신뢰와 충성에 더 기반을 둔 것 같습니다. 그 가신은 대왕이 그에게 행한 모든 좋은 일 때문에 충성스럽게 응답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의 조약 사이에 실제로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클라인 모델의 힘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그 구조를 본다면, 클라인은 고전적인 히타이트 형태와 후기 아시리아 또는 아람어 세파이레 형태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는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 통치자 사이에 동등 조약을 맺고 있으며 그 사본도 갖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히타이트 사람들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러한 유형의 문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C", "신명기 낱자에 대한 조약/언약 유추의 의미"로 이동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히타이트 조약이 에사르하돈이나 세피레의 조약과 같은 후기 조약에서 중복되지 않는 독특한 초기 조약 형태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결론이 증거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 같습니다 .

종주국 즉 대왕에 대한 봉신의 감사와 존경에 뿌리를 둔 히타이트 조약에 반영된 다른 정신은 그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 조약은 구조가 다르며 완전히 다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피레 조약은 아시리아 조약보다 히타이트 조약과 일부 유사점이 있지만 중요한 역사적 프롤로그와 기본 규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클라인이 종주권 조약의 다큐멘터리 형태의 진화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 차이가 과장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이 실제로 구약 시대를 통해 만나는 한 종임을 인정합니다 . 그러나 그는 눈에 띄는 진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신명기는 구조와 정신에 있어서 세피레 조약이나 8세기와 7세기의 아시리아 조약 보다 초기의 히타이트 조약과 더 밀접하게 일치한다” 고 말합니다 . 나는 클라인의 결론이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일부 비판적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인은 *대왕조약* 43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 “이전 조약과 후기 조약 사이의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연속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지만, 기원전 두 번째 천년기의 히타이트 조약을 고전적인 형태로 구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신명기는 이러한 기록 발전의 고전적인 단계에 속합니다. 여기에서 대왕의 조약으로서 신명기의 일견 모세의 기원이 *확증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논문의 핵심입니다. 나는 그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Tyndale Commentary에서 J. Thompson을 읽고 계십니다. 그는 51페이지와 52페이지에서 클라인의 주장의 강점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톰슨의 글을 읽으면서 그가 신명기의 날짜를 기원전 11 세기 와 10 세기 , 즉 대략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인 연합 군주제 시대로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 그것은 모자이크 이후이지만 왕국의 관점에서는 초기이다. 그는 이 책의 핵심 뒤에 있는 모세를 보지만, 편집 과정을 통해 이 책이 현재의 형태에 이르렀고 이는 모세 시대 이후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는 이 형식이 신명기의 기원에 대한 모자이크 날짜를 뒷받침한다는 클라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클라인의 논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신명기는 모세 시대 이후에 누군가가 쓴 조약 형식의 형태로 작성되었습니다.” 즉, 그는 조약/약정의 비유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 형식이 나중에 채택되었을 수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견해는 R. Frankena 의 견해와 매우 유사합니다 . 그의 “에사르하돈의 가신 조약과 신명기 연대 측정”에서 Frankena는 아시리아 조약을 살펴보고 히브리어가 아시리아 조약, 특히 신명기와 관련된 저주 공식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것은 앗시리아 조약의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 말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언급했듯이 와인필드는 히스기야와 요시아 시대의 궁정 서기관들이 아시리아 조약 형식을 잘 알고 그것을 이스라엘에 가져온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에서 신명기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톰슨은 “모세 시대보다 오래 후에 기록한 누군가에 의해 신명기가 고대 조약의 형태로 구조되었을 가능성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논평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가 말하는 또 다른 점은 “앗시리아나 아람어 조약이 프롤로그를 가정했거나 구두로 진술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 프롤로그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없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들이 그것을 가정했거나 구두로 진술했을 수도 있으므로 본문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프롤로그가 없다는 점을 크게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역사적 프롤로그가 포함된 7세기 조약 텍스트의 증거를 주장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텍스트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단편적이고 깨진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인 프롤로그가 있는지 없는지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톰슨은 역사적 프롤로그가 초기 히타이트 조약의 독특한 특징이 아니라고 제안함으로써 조약 형식의 진화에 대한 주장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므로 신명기에 역사적 서론이 있다는 사실이 비록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두 번째 천년기의 연대를 논증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내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톰슨과 이 두 가지 주장, 즉 역사적 프롤로그 주장과 나중에 누군가가 조약 형식으로 넣었다는 생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언급하고 몇 가지 다른 주장에 대해 논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의 중앙 집중화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다음 주 초에 그것에 대해 논해야 할 것입니다. 톰슨의 해설이 복음주의 시리즈인 InterVarsity Tyndale 시리즈에 있기 때문에 톰슨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톰슨이 모자이크 날짜를 지지하고 클라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Alessio Tranchell이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